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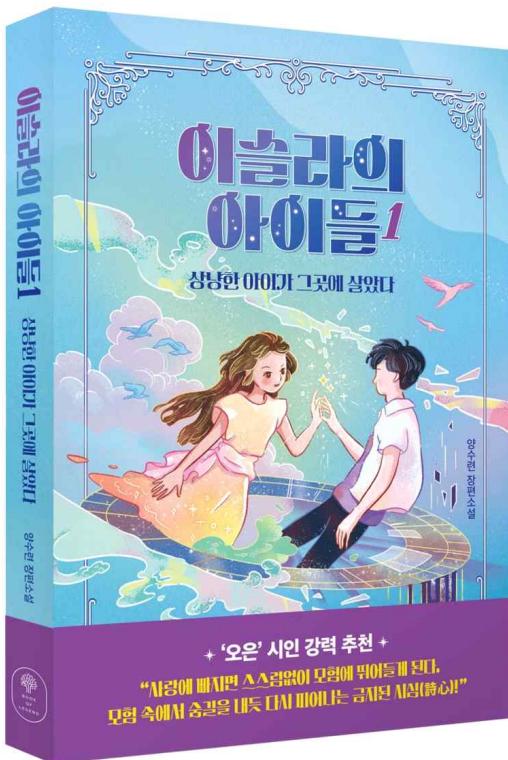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사용

#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

독서 지도안



작성 | 권유정(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이 독서지도안은 책이라는신화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gira\\_22](https://blog.naver.com/chaegira_22)



## 책 소개

### **“난 우리가 잃어버린 걸 되찾고 싶어.”**

대륙의 시대가 지고 섬의 시대를 맞이한 지구. 바다 소녀 ‘아니’는 태풍을 쫓아 시도, 시인도 존재하지 않는 섬 ‘이슬라’에 당도한다. 이성적인 소년 ‘아루’는 감성이 풍부한 ‘아니’를 운명처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낯선 감정들을 마주하는데……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감춰 왔던 이슬라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낯선 감정들과 마주하며 내면의 바다를 탐험하는 판타지 성장소설**

**수많은 감정의 단어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만큼  
마음이 다채로워지는 찬란한 모험이 시작된다!**



**소설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아요**

‘이슬라’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섬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른들의 말도 잘 듣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이슬라에서 사는 이성적인 아루는 바다에서 온 ‘오션맨’ 아니를 우연히 마주합니다. 자유롭고 감정에 솔직한 아니는 아루의 세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두 아이의 만남은 고요하던 이슬라에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완벽한 세상 이슬라와 자유로운 바다에 사는 서로 다른 두 세계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이슬라의 아이들』은 ‘시’가 사라진 섬 ‘이슬라’를 배경으로, 아루와 아니가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판타지 성장소설입니다.

아루와 아니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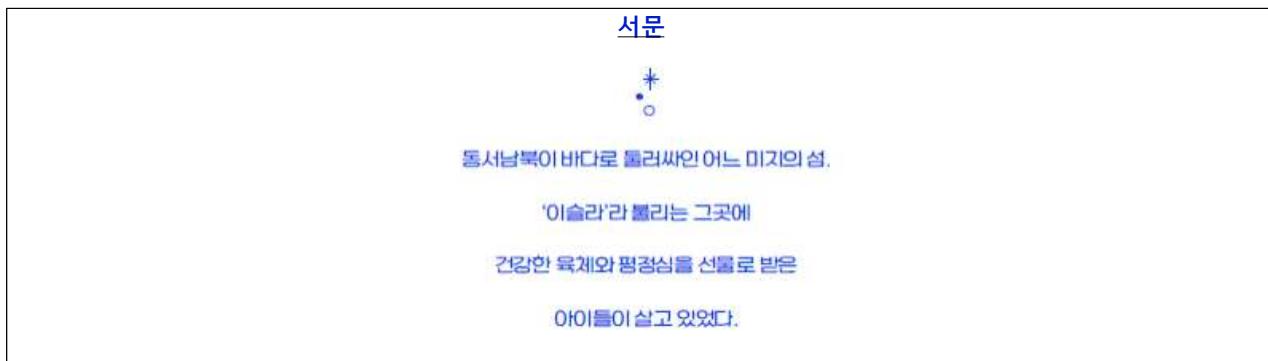
“나는 지금, 나답게 숨 쉬고 있을까?”

##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쪽수
1	독서 전	이슬라 입도 준비: 표지로 미리 만나는 세계	4
2	독서 중·후	주인공 한 장, 인물 소개 카드 작성하기	5
3		아루와 애니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건 정리하기	6
4	독서 후	독서 질문	7
5		뒷이야기 예측하기	10

## 1차시    독서 전 활동 – 이슬라 입도 준비: 표지로 미리 만나는 세계

여러분이 읽게 될 소설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소설을 읽기 전에 앞표지와 뒤페이지, 서문을 살펴본 뒤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독서 전 질문	내 생각 정리하기	독서 후 질문	내 생각 정리하기
표지 그림에는 어떤 장면과 분위기가 담겨 있나요?		→ 실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일치했나요? 다르게 느껴졌나요?	
『이슬라의 아이들 1』의 부제는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입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요약해 봅시다.	
서문은 각 도서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문의 주제어를 선정하고, 중요 주제어를 선택해 보세요.		→ 책을 읽고 난 뒤, 서문을 다시 살펴보고 서문의 의미를 해석하여 적어 봅시다.	
이슬라의 아이들은 모두 '완벽한 아이들'이라고 불립니다. '완벽함'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 이슬라 사회가 만든 '완벽한 아이들'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작품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함'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지도 tip** 독서 후에도 생각을 정리해 보고, 독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2차시    독서 중·후 활동 – 주인공 한 장, 인물 소개 카드 작성하기: 인물 정리하기

인물 소개 카드를 작성해 봅시다.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며, 그 인물들이 어떤 성격과 역할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소설 속 인물을 한 명 선택하여 인물 소개 카드를 제작하고, 완성된 카드를 모아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카드를 통해 작품의 인물 관계가 한눈에 정리되고,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물의 모습 그려보기	
이름 등장인물의 이름	
인물 관계 주인공과의 관계, 혹은 다른 인물과의 연결 고리	
성격·특징 인물의 성격, 습관, 말투, 가치관	
주요 사건 인물이 겪은 주요 사건이나 갈등	
상징적 장면 그 인물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	
나의 해석 이야기 속에서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혹은 느낀 점	

### 3차시      독서 중·후 활동 – 아루와 앤니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건 정리하기

우리가 읽은 소설 속 주인공 ‘아루’와 ‘앤니’는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닌 곳에서 각자의 발자취를 남깁니다. 이슬라에서 앤니는, 그리고 오아시스호에서 아루는 각자 어떤 일을 겪게 되나요?

이번 활동은 아루와 앤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같은 시간 속에 두 인물이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한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놓치기 쉬운 장면들이, 다른 인물의 여정을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건 기록하기	오아시스호에서 아루는.....	이슬라에서 앤니는.....
(예시) 아루가 기자들을 피해 바다의 오아시스호를 타게 되고, 앤니는 이슬라에 남게 되었을 때	기자들을 피해 항구로 온 아루는 출항 직전 앤니를 만나고, 자기 대신 모비 박사를 돌봐 달라는 앤니의 부탁을 듣고 오아시스호에 올라탄다. 처음에 아루는 앤니가 곧 따라올 거라고 생각 하지만, 배가 출항하고 나서야 앤니가 이슬라에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앤니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배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차르는 “이건 앤니의 선택이었다”며 회항을 거부한다.	앤니는 아루에게 모비 박사를 부탁한 뒤, 차르에게 자신이 이슬라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차르는 걱정스러웠지만, 앤니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슬라에 남은 앤니는 육지의 다양한 자연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고, 이후 ‘방주책방’에서 일하게 된다.

**지도 tip** 정답은 없습니다. 아루와 앤니의 발자국을 차근차근 되짚으며,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나만의 시선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4차시      독서 후 활동 – 독서 질문

### 1. 아루는 점심시간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 무엇을 하려 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음껏 숨을 쉬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 아루는 코로 숨을 쉬는 다른 이슬라의 아이들과 달리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교실에서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입숨을 쉬면 다른 아이들에게 냄새가 나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호흡하는 것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27쪽 참조)

### 2. 이슬라의 사람들은 왜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나요?

건강한 신체를 지닌 아이라 하더라도, 열일곱이 되기 전에 심정지로 사망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17쪽 참조)

### 3. 아루의 엄마 로사는 왜 아루에게 ‘이슬라의 아이답게’, 그리고 ‘이든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로사는 아루가 자연 임신으로 태어나 쿤텀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슬라의 다른 아이들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슬라 사회에서는 쿤텀백신을 통해 완벽한 신체와 평정심을 지닌 아이로 자라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로사는 아루가 다른 아이들과 달라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로사는 아루가 이슬라의 기준에 맞는 ‘정상적인 아이’로 살아가길 바라며, 그가 ‘이슬라의 아이답게’, 그리고 모범적인 아이인 이든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 4. 쿤텀백신 정책이란 무엇인가요?

퀀텀백신 정책이란, 이슬라의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모든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쿤텀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백신 정책이다. 쿤텀백신은 단순한 예방 주사가 아니라,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절 백신으로, 아이들이 시간을 들여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감정들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21쪽 참조)

### 5. 이슬라 기념관에 오션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션맨이 바다를 개척했다는 내용은 왜 없어? 이슬라기념관이라면 우리의 이야기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오션맨은 원래 이슬라 사람들이잖아.”

아니는 못 보고 지나친 게 아닌지 전시 보드를 되짚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션맨에 관한 기록은 없었다. 오션맨의 뿌리가 이슬라에 있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으며 자랐는데 말이다. 아니는 실망을 넘어 이건 배신이라고 격분했다.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 본문 중에서

이슬라의 지도자였던 카이는 더 완벽한 아이들을 만들어 충격 사건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쿤텀백신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고, 마침내 모비 박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쿤텀백신 정책을 두고 이슬라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이 생겼다. 결국 카이는 반대 세력을 배에 태워 바다로 내쫓았고, 그들이 다시는 이슬라에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오션맨의 역사는 이슬라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졌으며, 이슬라 기념관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 6. 모비 박사가 이슬라 기념관의 전시물을 훼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비 박사가 이슬라 기념관을 망친 이유는,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후배 서누 박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여겼던 모비 박사는, 자신의 업적이 서누에게 빼앗겼다고 느껴 분노와 상실감에 휩싸였다. 이슬라의 역사에서 이미 지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이성을 잃고 기념관을 망치고 말았다. (189~190쪽 참조)

## 7. 야니는 왜 아루를 보고 ‘반쪽 아이’라고 했을까요?

야니는 허깨비처럼 서서 현판을 올려다보다가 태풍에 떠밀렸다.  
기념관의 육중한 나무 문에 이마를 쿵, 짓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아파라.”  
야니는 이마를 문질렀다.  
“정신을 딴 데 파니까 그렇지.”  
남은 아파 죽겠다는데 하는 소리하고는. 야니는 눈을 흘기며 아루를 쳐다봤다. 이슬라의 아이들은 이성적이어서 낭만을 모른다고. 야니는 못내 안타까워하던 모비의 얼굴이 떠올라 서운한 마음을 거뒀다.  
“반쪽 어른보다는 반쪽 아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  
“무슨 말이야, 그게?”  
“그냥 나 혼자 하는 말이야.”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 본문 중에서

이슬라의 아이들은 이성적이고 통제된 존재이지만, 아루는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완전히 속하지도 못한 ‘사이’에 있었다. 야니는 그런 아루에게서 이성적인 면과 세상의 틀에 맞추지 않으려는 자유로움을 동시에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다.

**지도 tip**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상상하여 자기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8 이슬라에서 시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슬라에서 시가 사라지게 된 것은 아이들의 감정과 경험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그에 맞서 인간의 감정과 자유를 지키려 한 시인들의 갈등 때문이었다. 모비 박사는 아이들이 감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경험 데이터 이식 연구를 진행했고, 카이는 이를 퀸텀백신 정책으로 확대하여 시행했다. 이에 로인과 시인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을 느끼고 성장할 권리를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카이는 강제로 시인들을 이슬라에서 내쫓았다. 그 결과 시를 쓰던 사람들도, 시 자체도 사라지게 되었다. (175~178쪽 참조)

**지도 tip**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상상하여 자기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9 로인은 왜 ‘태양 시인’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을까요?

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빛과 따뜻함, 그리고 깨달음을 전하고 싶었다. 로인은 자신의 시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양 시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것이다.

**지도 tip**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상상하여 자기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10. 책 속에서 발췌한 아래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카이는 이슬라의 시집을 모조리 불태웠다. 시인은 물론 그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바다로 내몰았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아루는 모른다. 겸게 변한 로인의 얼굴과 부릅뜬 로인의 눈동자로 그때의 상황을 짐작만 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그래도 따라야만 되는 게 있어.”  
“할머니는 카이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오션맨에겐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이슬라에선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살게 한 카이를요?”  
“널 위해서였어. 아니, 아이들을 위해서였지.”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 본문 중에서

### ① 로인이 이슬라에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슬라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 손자인 아루와 남은 아이들에게 시와 인간다움의 씨앗을 남기기 위해 로인이 이슬라에 남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오션맨과 뜻을 같이하지는 못했지만, 이슬라 안에서 아이들에게 ‘진짜 감정’과 ‘깨달

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② '이슬라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로인이 자기 한 사람의 감정이나 고통보다,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시가 사라진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언젠가 다시 시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5차시     독서 후 활동 – 뒷이야기 예측하기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의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비밀, 이어질 선택, 그리고 남겨진 갈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요. 이번 활동은 <뒷이야기 예측하기>입니다. 1권에서 만난 인물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새로운 상상력을 더해 결말 이후의 세계를 만들어 보세요.

## <뒷이야기 예측하기> 활동 방법

- ① 작품 속 남겨진 갈등이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을 찾아봅니다.
  - ② 아루, 야니, 주변 인물들의 앞으로의 선택과 변화를 상상해 봅니다.
  - ③ “만약 내가 작가라면?”이라는 관점에서 2권의 줄거리 요약을 작성합니다.
  - ④ 조별로 서로의 예측을 공유하고, 가장 흥미로운 전개를 선정해 봅니다.

## ▷ 활동 기록지